

《碧鷄漫志》譯註(2)*

이 태 형**

— <目次> —

I. 《碧鷄漫志》제1권 역주
[1.10~1.13조]까지

II. 《碧鷄漫志》제2권 역주
[2.14~2.21]까지

I. 《碧鷄漫志》 제1권 역주

[1.10원문] 元微之分詩與樂府作兩科

元微之序《樂府古題》云：「操、引、謠、謳、歌、曲、詞、調八名，起於郊祭、軍賓、吉凶、苦樂之際。在音聲者，因聲以度詞，審調以節唱，句度短長之數，聲韻平上之差，莫不由之準度。而又別其在琴瑟者爲操、引，採民眊者爲謳、謠，備曲度者總謂之歌、曲、詞、調。斯皆由樂以定詞，非選詞以配樂也。詩、行、詠、吟、題、怨、嘆、章、篇九名，皆屬事而作，雖題號不同，而悉謂之爲詩可也。後之審樂者，往往採取其詞度爲歌曲，蓋選詞以配樂，非由樂以定詞也。」微之分詩與樂府作兩科，固不知事始，又不知後世俗變。凡十七名皆詩也，詩即可歌，可被之筦弦也。元以八名者近樂府，故謂由樂以定詞；九名者本諸詩，故謂選詞以配樂。今樂府古題具在，當時或由樂定詞，或選詞配樂，初無常法。習俗之變，安能齊一。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A2A03927032)

** 중앙대학교 외국학연구소 HK연구교수

[1.10] 원진이 시와 악부 두 분과로 나누다.

원진(元稹)¹⁾이 《악부고제(樂府古題)》 서문에서 말하기를, “조(操)·인(引)·요(謠)·구(謳)·가(歌)·곡(曲)·사(詞)·조(調) 등 여덟 개의 명칭은 교제사(郊祭祀)와 군빈(軍賓)·길흉(吉凶)·고락(苦樂)²⁾하는 사이에서 시작하였다. 음성(音聲)에 있는 것은 성(聲)에 따라 그 가사를 헤아리고 조(調)를 살펴서 창(唱)을 조절한다. 구도(句度)의 길고 짧은 수효와 성운(聲韻)의 평성(平聲)과 상성(上聲)의 차이가 그 기준에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런데도 거문고와 비파를 연주하는 것을 별도로 두어 조와 인이 되었고, 백성들에게서 채집한 것은 구와 요가 되었으며, 곡도(曲度)를 갖춘 것을 총칭해서 가·곡·사·조라고 불렀다. 이것은 모두 음악에 따라 가사를 정한 것이지 가사를 선택해 음악에 맞춘 것은 아니다. 시(詩)·행(行)·영(詠)·음(吟)·제(題)·원(怨)·탄(嘆)·장(章)·편(篇) 등 아홉 개의 명칭은 모두 일의 종류에 따라 지은 것으로 비록 제목과 호칭은 다르지만 전부 시라고 말해도 괜찮다. 훗날 음악을 살펴보는 사람이 종종 그 사도(詞度)를 채취했다가 가곡을 만들기도 하는데, 대개 가사를 선택해 음악에 맞춘 것이지 음악에 따라 가사를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원진이 시와 악부 두 분과로 나누었는데 진정 그 일의 시초를 알지 못하고 또 후세에 풍속이 바뀌지도 몰랐다. 모두 17개의 명칭은 모두 시이며, 시는 즉시 노래할 수 있고 그것을 관악기와 현악기에 덮어씌워서 연주할 수도 있다. 원래 여덟 개의 명칭은 악부에 가깝기 때문에 음악에 따라 가사를 정한 것이라고 하였고, 아홉 개의 명칭은 시에 근원을 두었기 때문에 가사를 선택해 음악에 맞추었다고 하였다. 오늘날에는 악부시의 옛 제목이 모두 남아 있는데 당 시에 간혹 음악에 따라 가사를 정하기도 하고, 혹은 가사를 선택해 음악에

- 1) 원진(元稹) : 원미지(元微之)는 당나라 원진(元稹, 779~831)을 가리킨다. 동시대 백거이(白居易)와 교류하였다.
- 2) 군빈(軍賓)·길흉(吉凶) : 성인(成人)의 도(道)로서 마땅히 제사 지내는 길례(吉禮), 상을 당했을 때의 흉례(凶禮), 군에 들어갔을 때의 군례(軍禮), 손님을 대할 때의 빈례(賓禮), 관례(冠禮)와 혼례(婚禮)와 같은 경사스러운 예인 가례(嘉禮) 등, 오례(五禮)를 말한다.

맞추기도 해서 처음에는 고정된 규칙이 없었다. 습속이 변해 가는데 어찌 균일하게 지을 수 있겠는가?

[1.11 원문] 古人善歌得名不擇男女

古人善歌得名，不擇男女。戰國時，男有秦青、薛談、王豹、綿駒、瓠梁，女有韓娥。漢高祖《大風歌》，教沛中兒歌之。武帝用事甘泉、園丘，使童男女七十人歌。漢以來，男有虞公、李延年、朱顧仙、朱子尚、吳安泰、韓法秀，女有麗娟、莫愁、孫瑣、陳左、宋容華、王金珠。唐時男有陳不謙、謙子意奴、高玲瓏、長孫元忠、侯貴昌、韋青、李龜年、米嘉榮、李袞、何戡、田順郎、何滿、郝三寶、黎可及、柳恭。女有穆氏、方等、念奴、張紅紅、張好好、金谷里葉、永新娘、御史娘、柳青娘、謝阿蠻、胡二姉、寵姐、盛小叢、樊素、唐有態、李山奴、任智方四女、洞雲。今人獨重女音，不復問能否。而士大夫所作歌詞，亦尚婉媚，古意盡矣。政和間，李方叔在陽翟，有攜善謳老翁過之者。方叔戲作《品令》云：「歌唱須是玉人，檀口皓齒冰膚。意傳心事，語嬌聲顫，字如貫珠。老翁雖是解歌，無奈雪鬢霜鬚。大家且道，是伊模樣，怎如念奴？」方叔固是沈于習俗，而語嬌聲顫，那得字如貫珠？不思甚矣。

[1.11 釋] 옛사람이 노래를 잘 불러 명성을 얻는데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

옛 사람이 노래를 잘 불러 명성을 얻는데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 전국시대(戰國時代)에 남자 가수로는 진청(秦靑)·설담(薛談)·왕표(王豹)·면구(綿駒)·호량(瓠梁) 등이 있었고, 여자가수로는 한아(韓娥)가 있었다. 한고조(漢高祖 劉邦)의 <대풍가(大風歌)³⁾>는 패현(沛縣)의 어린아이에게 가르

3) 대풍가(大風歌) : 한 고조(漢高祖)가 천자가 된 뒤에 고향인 풍포(豐沛)를 지나다가 부모(父老)들과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기를, “큰바람이 일어남이여 구름이 흩날리도다. 위엄이 사해(四海)를 덮음이여 고향에 돌아왔도다. 어찌맹사(猛士)를 얻어 사방(四方)을 지킬수 있을까.(大風起兮雲飛揚, 威加海內兮歸故鄉, 安得猛士兮守四方)”라고 하였다.

쳐 노래 부르게 하였다. 한무제(漢武帝)가 감천(甘泉)의 환구(圓丘)⁴⁾에 제사를 지내는데 소년·소녀 70명으로 하여금 노래 부르게 하였다. 한나라 이래에 남자가수로는 우공(虞公)·이연년(李延年)·주고선(朱顧仙)·주자상(朱子尚)·오안태(吳安泰)·한법수(韓法秀) 등이 있었고, 여자가수로는 여연(麗娟)·막수(莫愁)·손쇄(孫瑣)·진좌(陳左)·송용화(宋容華)·왕금주(王金珠) 등이 있었다. 당나라에 남자가수로는 진불겸(陳不謙)과 아들 진의노(陳意奴)·고영룡(高玲瓏)·장손원충(長孫元忠)·후귀창(侯貴昌)·위청(韋靑)·이귀년(李龜年)·미가영(米嘉榮)·이곤(李袞)·하감(何戡)·전순랑(田順郎)·하만(何滿)·학삼보(郝三寶)·여가급(黎可及)·유공(柳恭) 등이 있었다. 여자가수로는 목씨(穆氏)·방등(方等)·염노(念奴)·장홍홍(張紅紅)·장호호(張好好)·금곡리엽(金谷里葉)·영신랑(永新娘)·어사랑(御史娘)·유청랑(柳靑娘)·사아만(謝阿蠻)·호이자(胡二姉)·총달(寵姐)·성소총(盛小叢)·번소(樊素)·당유태(唐有態)·이산노(李山奴)·임지방(任智方)의 넷째딸·동운(洞雲) 등이 있었다. 지금 사람들은 유독 여자 가수의 음성만을 중요하게 여겨서 다시는 노래를 잘 부르든지 못 부르든지를 따지지 않는다. 그러나 사대부가 지었던 가사에도 오히려 부드럽고 아름답다. 옛사람이 지은 가사에도 모두 이러한 뜻이 들어가 있다. 정화(政和) 연간에, 이치(李廌)는 양적(陽翟)에 있었는데, 어떤 노래를 잘 부르는 늙은이를 모시고 지나가는 자가 있었다. 이방숙이 장난삼아 〈품령(品令)〉을 읊었다. “노래를 부르는 가수는 모름지기 미인이어야 하니, 어여쁜 입술에 새하얀 치아와 얼음 같은 피부로다. 말뜻은 마음을 전하는 일이요, 시어는 소리를 교태롭게 해서 떨치니, 글자가 마치 꿩어 놓은 진주 같았다. 늙은이가 비록 노래의 묘미를 깨우쳤다고는 하나, 새하얗게 새어버린 수염과 머리카락은 어찌할 도리가 없구나! 대가(大家)를 이루는 방도는 이러한 모양이 어떻게 염노와 같으리오?” 이방숙이 진실로 습속에 빠져있어 시어는 소리를 교태롭게 해서 떨친다고 하였으니 어떻게 글자가

4) 감천(甘泉)의 환구(圓丘) : 한 무제가 감천(甘泉) 환구(圓丘)의 사단(祠壇)에 모여드는 유성(流星)과 같은 귀신의 불빛들을 보고 죽궁(竹宮)이라는 궁실에 망배(望拜)했다. 《漢書 禮樂志》

마치 꿩어 놓은 진주 같을 수 있겠는가. 생각하지 않은 것이 심하다.

[1.12원문] 論雅鄭所分

或問雅鄭所分。曰：中正則雅，多哇則鄭；至論也。何謂中正？凡陰陽之氣，有中有正，故音樂有正聲，有中聲。二十四氣，歲一周天，而統以十二律。中正之聲，正聲得正氣，中聲得中氣，則可用。中正用，則平氣應。故曰：中正以平之。若乃得正氣而用中律，得中氣而用正律，律有短長，氣有盛衰，太過不及之弊起矣。自揚子雲之後，惟魏漢津曉此。東坡曰：「樂之所以不能致氣召和如古者，不得中聲故也。樂不得中聲者，氣不當律也。」東坡知有中聲，蓋見孔子及伶州鳩之言，恨未知正聲耳。近梓潼雍嗣侯者，作正筌訣琴數，還相爲宮，解律呂逆順相生圖。大概謂知音在識律，審律在習數。故師曠之聰，不以六律不能正五音，諸譜以律通不過者，率皆淫哇之聲。嗣侯自言得律呂真數，著說甚詳，而不及中正。

[1.12역] 아악과 정악의 구분을 논하다.

누군가가 아악(雅樂)과 정악(鄭樂)⁵⁾의 구분을 물어서, 대답하였다. “중도에 맞고 바르면 아악이고 음란한 소리가 많으면 정악이라 한다. 이것은 지극한 논제이다. 중도에 맞고 바른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무릇 음양의 기에는 중도에 맞는 것이 있고 바름이 있기 때문에 음악에는 바른 소리가 있고 중도에 맞는 소리가 있다. 24절기는 1년 동안 하늘을 한번 도는데 모두 12율로 통합한다. 중도에 맞고 바른 소리란 바른 소리가 바른 기운을 얻고 중도에 맞는 소리가 중도에 맞는 기운을 얻으면 사용할 만하다. 중도에 맞고 바른 소리가 사용되면 화평한 기운이 응하게 되기 때문에 중

5) 아악(雅樂)과 정악(鄭樂) : 아악(雅樂)은 바른 음악이라는 뜻으로 국가의 예식에 사용된다. 정악(鄭樂)은 춘추(春秋) 시대 정(鄭)나라의 음악으로 음란한 음악으로 유명하다. 《논어》〈양화(陽貨)〉편에 “잡색인 자줏빛이 흰색인 붉은빛의 자리를 뺏는 것을 미워하며, 정나라의 음란한 음악이 바른 아악을 문란하게 하는 것을 미워하며, 말만 잘하는 입이 나라를 뒤엎는 것을 미워한다.[惡紫之奪朱也，惡鄭聲之亂雅樂也，惡利口之覆邦家者]”라고 되어 있다.

도에 맞고 바른 것으로 화평하게 한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바른 기운을 얻어서 중도에 맞는 음률을 사용하고 중도에 맞는 기운을 얻어 바른 음률을 사용하게 된다. 음률에는 길고 짧은 것이 있고, 기운에는 왕성하고 쇠잔함이 있으니 너무 지나치거나 모자라는 폐단이 생겨난다. 양자운(揚子雲)⁶⁾ 이후로 오로지 위한진(魏漢津)⁷⁾만이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다. 소식이 말하기를, “음악이 옛날처럼 기운을 이루어 조화를 부르지 못하는 까닭은 중도에 맞는 소리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 음악이 중도에 맞는 소리를 얻지 못한 것은 기운이 음률에 적당하지 않아서이다.” 소식은 중도에 맞는 소리가 있는지 알고 있으니, 아마 공자께서 영주구(兪州鳩)⁸⁾의 말을 언급하면서 바른 소리를 모르는 것을 한스러워 하신 것을 보았을 뿐이다. 근래에 용주(雍州)⁹⁾에 있는 사후(嗣侯 수령)가 정생결(正笙訣)의 금수(琴數)를 짓고 돌아와서 서로 궁으로 삼았다. 율려(律呂)의 역순(逆順)을 풀어서 상생하는 그림이 되었다. 대개 음악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음률을 안다는데 달려있고 음률을 살피는 것은 자주 연습하는데 달려있다. 사광 같이 총명한 사람¹⁰⁾이라 하더라도 6률로 5음을 바르게 할 수 없어 6율을 통하게 하

- 6) 양자운(揚子雲) : 자운은 전한(前漢) 말의 학자 양웅(揚雄)의 자(字)로, 《태현경(太玄經)》·《법언(法言)》 등의 대표적인 저서가 있는데, 《법언》은 도가(道家)의 말을 빌려서 《논어(論語)》의 형식으로 유가(儒家)의 학설을 논한 것이다.
- 7) 위한진(魏漢津) : 송 나라 휘종(徽宗)이 팔정(八鼎)을 만들고 음악을 새로 제정한 뒤에 조서(詔書)를 내리기를, “은일의 선비, 위한진[隱逸之士, 魏漢津]을 얻어서 몸을 도(度)로 삼고 술을 만들어서 음률을 일으키고, 음률에 의하여 악기를 만들었다.” 하였다.
- 8) 영주구(兪州鳩) : 춘추 시대 주나라 경왕(景王) 때의 악관이다. 영(伶)은 영(冷)으로도 쓰는데, 관직명이고, 주구는 이름이다. 영주구가 경왕에게 정악(正樂)을 즐기라고 간했던 일. 소(韶)는 순(舜)의 악(樂)이고, 호(濩)는 탕(湯)의 악인데, 당시 경왕이 무역(無射)이라는 종을 주조하려 하자 영주구가 주조하지 말도록 간하면서, 왕이 내년에 심질(心疾)로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였음. 《左傳 昭公 21年》
- 9) 용주(雍州) : 용주는 중국 구주(九州)의 하나로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지방이다.
- 10) 사광(師曠)의 총명함 : 춘추 시대 진(晉)나라 악사(樂師)였던 사광(師曠)은 귀가 대단히 밝아 음률(音律)에 통달하였다. 《孟子·離婁上》

는 데 불과한 여러 악보에 실린 노래는 대부분 정음과 잘 맞지 않는 소리이다. 사후가 스스로 말하기를 적절한 율(律呂)을 얻었던 것이 진정 많다고 하였으니, 발설한 것이 매우 자세하지만, 중도에 맞고 바른 것에는 미치지 못했다.

[1.13원문] 歌曲拍節乃自然之度數

或曰：古人因事作歌，輸寫一時之意，意盡則止，故歌無定句；因其喜怒哀樂，聲則不同，故句無定聲。今音節皆有轄束，而一字一拍，不敢輒增損，何與古相戾歟？予曰：皆是也。今人固不及古，而本之情性，稽之度數，古今所尚，各因其所重。昔堯民亦擊壤歌，先儒爲搏拊之說，亦曰所以節樂。樂之有拍，非唐虞創始，實自然之度數也。故明皇使黃幡綽寫拍板譜，幡綽畫一耳於紙以進，曰：「拍從耳出。」牛僧孺亦謂拍爲樂句。嘉祐間，汴都三歲小兒在母懷飲乳，聽曲皆撚手指作拍，應之不差。雖然，古今所尚，治體風俗，各因其所重，不獨歌樂也。古人豈無度數？今人豈無性情？用之各有輕重，但今不及古耳。今所行曲拍，使古人復生，恐未能易。

[1.13역] 가곡의 박자와 리듬은 바로 자연 그대로의 도수(度數)이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옛 사람이 사건으로 인하여 노래를 지었는데 한때의 뜻을 묘사해 내었다. 뜻이 다하면 멈추기 때문에 노래에 정해진 구절이 없다. 그 회로에락에 따라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구절에는 정해진 소리가 없다. 오늘날의 음절은 모두 구애를 받아서 한 글자에 한 박자를 쓰다보니 감히 매번 보태거나 줄일 수가 없으니 어떻게 옛날과 어긋나겠는가!”라고 했다. 내가 말하였다. “모두 옳은 말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옛날만 못하니, 성정(性情)에 근본하며, 도수(度數)에 상고하니 옛날과 지금이 숭상하는 것은 각각 그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인하게 마련이다. 옛날의 요(堯)임금의 백성이 또한 <격양가(擊壤歌)>¹¹⁾에서 선배 유림들이 무릎과 손뼉을 쳤

11) 격양가(擊壤歌) : 요(堯) 임금 때에 노인이 지었다는 격양가(擊壤歌)에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쉬면서, 내 우물 파서 물 마시고 내 밭을 갈아서 밭

다는 말을 하였고 또한 리듬이 있는 음악이라고 하였다. 음악에는 박자가 있으니 요순(堯舜)이 창시한 것은 아니고 진실로 자연스러운 도수이다. 그러므로 명황제(明皇帝 당현종)가 황번작(黃幡綽)¹²⁾에게 박판보(拍板譜)¹³⁾를 쓰게 하니, 황번작이 종이에다 귀 한쪽을 그려서 바치면서 “박자가 귀에서부터 나옵니다”라고 말하였다. 우승유(牛僧孺)¹⁴⁾ 역시 박자를 음악의 구절로 삼았다. 가우(嘉祐)¹⁵⁾ 연간에 변경(汴京)¹⁶⁾의 세살배기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고 가곡을 들으면 모두 손가락을 비벼서 박자를 쳤는데 화답하는 것이 다르지 않았다. 비록 그렇지만, 옛날과 지금 사람이 숭상하는 것은 풍속을 다스리는 요체인데 각자 그 소중히 여기는 것을 따르는데 노래와 음악이 빠지지 않는다. 옛사람이라고 어찌 도수가 없겠는가! 지금 사람이라고 어찌 성정(性情)¹⁷⁾이 없겠는가? 그것을 사용하면서 각각 가볍게 여기거나 중요시 하는 차이가 있는데 다만 오늘날은 옛날만 못할 뿐이다. 오늘날 유행하는 가곡의 박자를 옛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살

먹나니, 임금님의 힘이 나에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랴.[日出而作, 日入而息. 鑿井而飲, 耕田而食, 帝力於我何有哉]”라는 말이 나오는 데에서 유래한 것이다.

- 12) 황번작(黃幡綽) : 당나라 현종 때의 배우로, 개원(開元) 초에 궁중에 들어와 30년간 현종을 모셨다. 성격이 익살스럽고 대답을 잘하여 시정(時政)에 대한 풍자와 해학이 있었으며, 안녹산의 난 때에는 반군에 조력하기도 하였다. 그로 인해 난이 평정된 뒤에 구금되기도 하였으나 현종이 불쌍히 여겨 풀어 주었다고 한다. 《開天傳信記》
- 13) 박판(拍板) : 악기의 하나. 2매 내지 10여 매의 매끄러운 목판(木板)의 한 끝을 끈으로 꿰어 손에 잡고서 음악의 박자를 맞추는 것이다.
- 14) 우승유(牛僧孺) : 당(唐) 나라 문종(文宗) 때의 권신(權臣)으로 자(字)는 사암(思黯)이다.李宗閔(李宗閔)과 봉당을 결성하고 천하에 위세를 떨쳐, 당시에 우이(牛李)로 불리어졌으며, 그 뒤 좌천을 거듭하다가 선종(宣宗) 때 태자소사(太子少師)로 죽었다. 《唐書 卷174》
- 15) 가우(嘉祐) : 송나라 인종(仁宗)의 연호. 1056년부터 1063년까지이다.
- 16) 변경(汴京) : 북송의 수도로 변수(汴水) 주변에 위치한 지금의 카이펑(開封)이다.
- 17) 성정(性情) : 성정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갖추고 있는 본성과 온갖 감정이다. 보편적으로 하늘이 사람에게 부여한다는 인의예지(仁義禮智) 사단(四端)이 성에 속하고, 사물에 감응하여 발현되는 모든 감정 희노애락애오욕(喜怒哀樂愛惡慾) 등은 정에 속한다고 인식된다.

아나게 하더라도 아마 쉽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II. 《碧鷄漫志》 제2권 역주

[2.14원문] 唐末五代樂章可喜

唐末五代, 文章之陋極矣, 獨樂章可喜。雖乏高韻, 而一種奇巧, 各自立格, 不相沿襲。在士大夫猶有可言, 若昭宗 ‘野煙生碧樹, 陌上行人去’, 豈非作者? 諸國僭主中, 李重光、王衍、孟昶、霸主錢俶, 習于富貴, 以歌酒自娛。而莊宗同父興代北, 生長戎馬間, 百戰之餘, 亦造語有思致。國初平一字內, 法度禮樂, 寢復全盛。而士大夫樂章頓衰于前日, 此尤可怪。

[2.14釋] 당나라 말기에서 오대시대의 악장은 좋아할 만하다.

당나라 말기에서 오대시대(五代時代)는 문장은 매우 비루하지만, 유독 악장(樂章)만은 좋아할 만하다. 비록 고아한 음률은 부족하지만, 일종의 기교가 각자 스스로 격식을 세우고 답습하지는 않았다. 사대부 사이에 있어서 그래도 언급할 만한 것이 있으니, 예를 들면 소종(昭宗)¹⁸은 “뜰안개가 푸른 나무에 피어나는데, 발두둑 위로 행인이 지나가네.”라고 하였으니 어찌 좋은 작품이 아니겠는가! 여러 나라에서 제왕을 참칭(僭稱)한 사람 중에 이욱(李煜)·왕연(王衍)·맹창(孟昶)¹⁹, 패주(霸王)인 전숙(錢俶)²⁰은 모두

18) 소종(昭宗) : 의종(懿宗)의 아들. 희종(僖宗)의 뒤를 이어 즉위하여 기울어가는 당을 다시 일으키려고 노력했으나 환관이 국정(國政)을 어지럽히고 번진(藩鎮)이 발호하여 이루지 못하고 끝내는 세력이 강해진 주운(朱溫)에게 시해당하였다. 《舊唐書 卷20上》《新唐書 卷10》

19) 이욱(李煜)·왕연(王衍)·맹창(孟昶) : 이중광(李重光)은 오대(五代)의 마지막 남당(南唐)의 임금. 이름은 옥(煜), 자는 중광(重光). 문장과 서화에 뛰어났음. 왕연(王衍)은 오대 시기 전촉(前蜀)의 국왕이다. 어려서 왕위에 올라 음란한 것을 일삼으며 밤낮으로 술을 마시다가 후당(後唐)에게 멸망당하였다. 맹창(孟昶)은 오대(五代)의 마지막 후촉주(後蜀主)이다.

20) 패주(霸王)인 전숙(錢俶) : 전홍숙(錢弘俶, 929~988)을 가리킨다. 중국 오대십

부귀에 익숙해서 노래와 술로써 스스로 즐거워하였다. 그러나 장종(莊宗)²¹⁾은 부친인 이극용(李克用)과 함께 대북(代北)땅²²⁾에서 흥기하여 군영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수많은 전쟁에 참가한 끝에도 또한 사구를 짓느라 지극히 고심하였다. 개국한 초기에 천하를 통일시키자 법도와 예악이 점점 전성기를 회복하였지만, 사대부의 악장은 갑자기 지난날에 비해 쇠락하였으니 이는 더욱 이상하게 여길 만 하다.

[2.15월문] 唐昭宗詞

唐昭宗以李茂貞之故，欲幸太原，至渭北，韓建迎奉歸華州。上鬱鬱不樂，時登城西齊雲樓眺望，製《菩薩蠻》曲曰：「登樓遙望秦宮殿，茫茫只見雙飛燕。渭水一條流，千山與萬丘。野煙生碧樹，陌上行人去。安得有英雄，迎歸大內中。」又曰：「飄飄且在三峰下，秋風往往堪沾灑。腸斷憶仙宮，朦朧煙霧中。思夢時時睡，不語長如醉。早晚是歸期，穹蒼知不知？」

국 시대 오월(吳越)의 제5대 왕이자 마지막 왕으로, 자는 문덕(文德)이다. 문목왕(文穆王) 전원관(錢元瓘)의 아홉째 아들로, 947년 전원관의 아들 전홍좌(錢弘佐)가 죽고 아우 전홍종(錢弘侗)이 뒤를 이었으나 반란이 일어나 퇴위당하였고, 다시 그의 아우 전홍숙이 왕위에 올랐다. 후한(後漢)과 후주(後周)를 섬기고 남당(南唐)과 적대 관계를 이루었으나, 남당이 후주의 공격을 받아 약화되었으므로 비교적 평온한 시기를 보냈다. 975년 송(宋)나라에 의해 남당이 멸망하고 송나라와 직접 국경이 맞닿게 되자 978년 나라를 바치며 귀순하고 회해국왕(淮海國王)에 봉해졌다. 983년 남한국왕(南漢國王)으로 이름을 바꾸고, 988년에 등왕(鄧王)으로 고쳐 봉해졌다. 진국왕(秦國王)에 추봉되었으며, 시호는 충의왕(忠懿王)이다. 재위 기간은 948~978년이다.

21) 장종(莊宗) : 오대 후당 이극용(李克用)의 아들로, 이름은 존욱(存勳)이다. 그는 908년에 부왕의 사망 후 진왕에 즉위, 923년에 하북(河北)에서 제위에 올라, 진을 당(唐)이라 하고, 후량(後梁)을 멸망시켜 낙양(洛陽)에 도읍을 정했다. 무사로 용맹이 뛰어났고 또한 어려서부터 노래와 춤 그리고 음악을 즐겼으나, 후량을 멸망시킨 후부터 사치에 빠져 민심을 잃게 되어 926년에 친군(親軍)의 대장 곽종근(郭從謹)에게 살해당하였다. 《五代史 卷27》

22) 대북(代北) : 산시성 북부 땅을 가리킨다.

[2.15역] 당 소종의 가사.

당나라 소종(昭宗)이 이무정(李茂貞)의 난²³⁾으로 태원(太原)으로 행행(行幸)하고자 하여 위수(渭水) 북쪽에 이르자 한건(韓建)²⁴⁾이 맞이하여 모시고 화주(華州)로 돌아갔다. 황제가 마음이 답답해서 즐겁지 않았는데, 때때로 성 서쪽에 자리한 제운루(齊雲樓)에 올라 멀리 바라보며 「보살만(菩薩蠻)」 곡을 지어서 불렀다. “누각에 올라 저 멀리 진나라 궁전을 바라보니, 아득하게 펼쳐진 광경에 한 쌍의 나는 제비만 보이네. 한 줄기 위수(渭水) 흐르나니, 수많은 산과 구름이여. 들판에 아지랑이는 푸른 나무에 피어나고, 발두둑 위로 행인이 지나간다고. 어찌해야 영웅을 만나서, 이를 맞이하여 세상 속으로 돌아올꼬” 또 지어서 불렀다. “회오리바람이 또 삼봉(三峰) 아래서 불어오고, 가을바람은 종종 불어 눈물 적시네. 애간장 끊어지듯 선궁(仙宮)이 그리운데, 몽롱한 연기와 안개 속에 자리하네. 꿈속에서 그리워 때때로 즐다보면, 오랫동안 말없이 온통 취한 것 같구려. 조만간 돌아오겠다는 그 기약, 높고 푸른 하늘은 아는가 모르는가?”

[2.16원문] 各家詞短長

王荊公長短句不多，合繩墨處，自雍容奇特。晏元獻公、歐陽文忠公，風流縉藉，一時莫及，而溫潤秀潔，亦無其比。東坡先生以文章餘事作詩，溢而作詞曲，高處出神入天，平處尚臨鏡笑春，不顧儕輩。或曰：長短句中詩也。爲此論者，乃是遭柳永野狐涎之毒。詩與樂府同出，豈當分異？若從柳氏家法，正自不得不分異耳。晁無咎、黃魯直皆學東坡，韻製得七八。黃晚年閑放于狹邪，故有少疏蕩處。後來學東坡者，葉少蘊、蒲大受亦得六七，其

23) 이무정(李茂貞)의 난 : 이무정은 사병(士兵) 출신이다. 당 소종(唐昭宗) 대순(大順) 2년(891) 양복공(楊復恭)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소종의 허락을 얻지 못하였는데도 흥원(興元)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장안을 압박했다. 소종을 협박하여 진왕(秦王)에 봉진되어 발호하였다. 건녕(乾寧) 3년(896)에는 군사를 이끌고 장안을 공격하여 소종이 화주(華州)로 피난 간 일도 있었다. 《舊五代史 卷132 世襲列傳》

24) 한건(韓建) : 화주자사(華州刺史)이면서 진국절도사(鎭國節度使)이다.

才力比晁、黃差劣。蘇在庭、石者翁入東坡之門矣，短氣蹶步，不能進也。趙德麟、李方叔皆東坡客，其氣味殊不近，趙婉而李俊，各有所長，晚年皆荒醉汝穎京洛間，時時出滑稽語。賀方回、周美成、晏叔原、僧仲殊各盡其才力，自成一家。賀、周語意精新，用心甚苦。毛澤民、黃載萬次之。叔原如金陵王謝子弟，秀氣勝韻，得之天然，將不可學。仲殊次之，殊之瞻，晏反不逮也。張子野、秦少游俊逸精妙。少游屢困京洛，故疏蕩之風不除。陳無己所作數十首，號曰《語業》，妙處如其詩，但用意太深，有時僻澀。陳去非、徐師川、蘇養直、呂居仁、韓子蒼、朱希真、陳子高、洪覺範，佳處亦各如其詩。王輔道、履道善作一種俊語，其失在輕浮，輔道誇捷敏，故或有不縝密。李漢老富麗而韻平平。舒信道、李元膺，思致妍密，要是波瀾小。謝無逸字字求工，不敢輒下一語，如刻削通草人，都無筋骨，要是力不足。然則獨無逸乎？曰：類多有之，此最著者爾。宗室中，明發、伯山久從汝洛名士游，下筆有逸韻，雖未能一一盡奇，比國賢、聖褒則過之。王逐客才豪，其新麗處與輕狂處皆足驚人。沈公述、李景元、孔方平、處度叔侄、晁次膺、万俟雅言，皆有佳句，就中雅言又絕出。然六人者，源流從柳氏來，病於無韻。雅言初自集分兩體：曰雅詞，曰側艷，目之曰《勝萱麗藻》。後召試入官，以側艷體無賴太甚，削去之。再編成集，分五體：曰應制、曰風月脂粉、曰雪月風花、曰脂粉才情、曰雜類，周美成目之曰《大聲》。次膺亦間作側艷。田不伐才思與雅言抗行，不聞有側艷。田中行極能寫人意中事，雜以鄙俚，曲盡要妙，當在万俟雅言之右，然莊語輒不佳。嘗執一扇，書句其上云：「玉蝴蝶戀花心動。」語人曰：「此聯三曲名也，有能對者，吾下拜。」北里狹邪間橫行者也。宗室溫之次之。長短句中，作滑稽無賴語，起於至和。嘉祐之前，猶未盛也。熙、豐、元祐間，衮州張山人以談諧獨步京師，時出一兩解。澤州孔三傳者，首創諸宮調古傳，士大夫皆能誦之。元祐間，王齊叟彥齡，政和間，曹組元寵皆能文，每出長短句，膾炙人口。彥齡以滑稽語譏河朔。組潦倒無成，作《紅窗迳》及雜曲數百解，聞者絕倒，滑稽無賴之魁也。夤緣遭遇，官至防禦使。同時有張衮臣者，組之流，亦供奉禁中，號「曲子張觀察」。其後祖述者益眾，嫚戲汙賤，古所未

有。組之子知閣門事勳，字公顯，亦能文，嘗以家集刻板，欲蓋父之惡。近有旨下揚州，毀其板云。

[2.16] 각 사가의 장단구 사.

왕안석(王安石)²⁵의 장단구는 많지 않은데, 율격과 합치하는 부분은 본디 온화하면서도 기특하였다. 안수(晏殊)²⁶와 구양수(歐陽脩)²⁷는 풍류가 자자해서, 당시의 문객들이 미치지 못했고, 온화하면서 빼어나게 정갈하였으니 또한 이에 견줄만한 문인이 없었다. 소식 선생은 문장이란 틈이 날 때 취미로 시를 지었지만, 그마저도 가득 넘쳐서 사곡(詞曲)을 지었는데 고아한 부분은 신묘한 경지를 뛰어넘어 천연의 경지에 들어갔으며, 평범한 부분에도 오히려 거울을 비춰 봄을 즐기고 있으니 문인 무리들이 나란히 견주지 못하였다. 어떤 사람은 ‘장단구 중에 시가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논평을 하는 자는 바로 유명(柳永)의 야호(野狐)의 독침²⁸에 중독되었다는 것이다. 시와 악부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인데 어찌 다르게 분별해야 되겠는가! 만약 유명한의 가법을 따른다면, 정말로 본래 어쩔 수 없이 다르게 분별하지 않을 수 없을 뿐이다.²⁹ 조무구(晁無咎)와 황정건(黃

25) 왕안석(王安石) : 본문의 왕형공(王荊公)은 북송(北宋)의 정치가 왕안석(王安石)을 말하는데, 그의 봉토(封土)가 형(荊) 땅이었기 때문에 형공이라 부른다. 자는 개보(介甫)이고 호는 반산(半山)이다.

26) 안원헌(晏元獻) : 안수(晏殊, 991~1055)는 송(宋)나라 임천인(臨川人)으로, 자는 동숙(同叔)이고, 시호는 원헌이다. 가사(歌詞)에 능하고 시도 잘 지었다.

27) 구양 문충공(歐陽文忠公) : 구양수(歐陽脩, 1007~1072)를 가리킨다. 중국 북송(北宋) 때의 문장가이자 정치가로, 자는 영숙(永叔), 호는 취옹(醉翁)이며 만년에는 육일거사(六一居士)라고 하였다.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한 사람으로, 미문조인 서곤체(西崑體)를 개혁하고 당(唐)나라의 한유(韓愈)를 모범으로 하는 시문을 지었다. 운율과 격식을 중시하고 전고(典故)를 남용하는 변려문을 배격하고, 평이하고 간결한 고문(古文)의 부흥을 주도함으로써 중국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저서로 《구양문충공집(歐陽文忠公集)》·《육일사(六一詞)》·《육일시화(六一詩話)》 등이 있다.

28) 야호(野狐)의 독침 : 시문(詩文)의 법을 제대로 터득하지 못한 사람의 수준 낮은 시문을 비유한 말이다.

29) 만약 유명한의 뿐이다 : 이 부분의 서술에서 송대의 사체에 대한 두 가지

庭堅)은 모두 소식의 시를 배웠는데, 운율을 지으면 그 중 7, 8할은 소식과 맞았다. 황정건은 만년에 협야(狹邪)³⁰)에서 한가하게 노닐었기 때문에 다소 시원시원한 부분이 있었다. 후에 소식의 시를 배운 사람으로 섭몽득(葉夢得)과 포영(蒲瀛) 또한 6, 7할은 소식과 맞았지만 그 재능은 조무구와 황정건에 비하면 조금 열등했다. 소재정(蘇在庭)과 석기옹(石耆翁)이 소식의 문하로 입문하였는데 짧은 호흡이나 반 발자국조차 진보할 수 없었다. 조덕린(趙德麟)과 이방숙(李方叔)은 모두 소식의 문객(門客)인데 그 기질은 사뭇 달랐다. 조덕린은 아름다운데 이방숙은 빼어나서 각각의 장점이 있었는데 말년에 모두 여영(汝穎)과 도성 사이³¹)에서 놀이와 술에 빠져 지내며 때때로 우스갯소리를 내기도 하였다. 하주(賀鑄)³²·주방언(周邦彥)³³·안기도(晏幾道)·승려인 중수(仲殊)는 각각 재능을 다 펼쳐서 스스로

다른 관념이 드러난다. 소식을 대표로 하는 정성파는 시와 사는 본래 情性이 같은 것으로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다고 본다. 유영을 대표로 하는 성률파는 시는 별도의 것으로 시와 사는 마땅히 분리된다고 본다. 왕작은 정성파의 주장을 지지한다. “詩與樂府同出，豈當分異(시와 악부는 같은 곳에서 나온 것인데 어떻게 다르게 분리되는가?)”라고 하였다. 박씨 성률파는 “若從柳氏家法，正自不得分異也.(만약 유씨 가법을 따른다면, 어떻게 나누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만약 여기서 “得不” 두 글자를 생략해 버린다면 그 의미는 정반대가 돼서 “柳氏家法正自不分異(유영파는 正自 분리하지 않았다)”가 될 것이다. 두 문장은 서로 모순될 뿐만 아니라, 성률파의 “詩與樂府分異(시와 악부는 분리된다)”는 기본 관념을 완전히 곡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문장의 “得不”는 절대로 생략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30) 협야(狹邪) : 좁고 꼬불꼬불한 골목길을 말한다.

31) 여영(汝穎)과 도성 사이 : 원문은 ‘汝穎京洛間’으로 북송의 수도 변경(汴京) 주변의 지명이다. 황하의 지류의 여수(汝水)와 영수(潁水), 그리고 낙양(洛陽)과 수도인 변경을 아우르는 말이다.

32) 하주(賀鑄) : 송(宋)나라 문인(文人)으로 방회(方回)는 그의 자이다. 그는 일찍이 승사랑(承事郎), 사주 통판(泗州通判) 등을 역임했다. 그는 시에 능하였고 특히 사(詞)에 뛰어났다. 저서에 《동산악부(東山樂府)》, 《경호유로집(慶湖遺老集)》 등이 있다.

33) 주방언(周邦彥) : 송나라 전당(錢塘) 사람으로 자는 미성(美成)이다. 제자백가(諸子百家)의 서적을 두루 섭렵한 그는 원풍(元豐) 연간에 변도부(汴都賦)를 지어 올린 후 대악정(太樂正)이 되었고, 그 후 사장(辭章)에 더욱 주력하여 휘종(徽宗) 때에는 휘유각 대제(徽猷閣待制)를 지내고 대정부 제거(大晟府提舉)

한 대가를 이루었다. 하주와 주방언은 말의 의미에 정밀하고 참신했으며 마음 쓰는 것이 매우 고달팠다. 모택민(毛澤民)·황재만(黃載萬)은 이들에 버금갔다. 안기도가 금릉(金陵 지금의 난징)의 왕(王)씨와 사(謝)씨의 훌륭한 자제처럼 빼어난 기운과 훌륭한 운율은 자연스러움을 얻었는데 장차 배워서 익힐 수가 없었다. 중수는 이에 버금가며, 중수가 풍부한 재주를 안기도는 도리어 미치지 못했다. 장선(張先)·진관(秦觀)은 뛰어나며 정교하였다. 진관은 자주 변경과 낙양에서 곤궁하였기 때문에 소탈한 풍모가 사라지지 않았다. 진사도(陳師道)가 지은 수십 수를 <어업(語業)>이라하고 불렀는데, 신묘한 부분은 그 시와 같지만, 다만 의미가 매우 심오해서 때때로 잘 안 쓰는 괴팍한 시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진여의(陳與義)·서사천(徐師川)·소양직(蘇養直)·여거인(呂居仁)·한구(韓駒)·주희진(朱希眞)·진자고(陳子高)·홍각범(洪覺範)의 아름다운 부분 역시 각각 그 시와 같다. 왕보도(王輔道)·이도선(履道善)은 일종의 뛰어난 사어를 잘 지었는데, 경박함에서 실수를 하였고 왕보도는 민첩함을 과시하였기 때문에 더러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한로(李漢老)는 화려하고 풍부하지만 운율은 평이하였다. 서신도(舒信道)·이원옹(李元膺)은 시상이 아주 아름답고 면밀하니 요컨대 감정의 기복이 적었다. 사무일(謝無逸)은 한 글자 한 글자에 공교로움을 추구하여 감히 한 문장도 가볍게 놓지 않아서 마치 사람을 각박하게 고통을 주어서 도무지 근육과 뼈가 남아나질 않을 듯 하니 요컨대 필력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유독 사무일은 어떠한가? 말하자면, 비슷한 부류야 많이 있지만, 이것이 가장 잘 지은 것일 뿐이다. 종실(宗室) 중에서는 조명발(趙明發)·조백산(趙伯山)은 오랫동안 여수와 낙양의 명사를 따라 종유해서 붓을 들어 시를 쓰면 고상한 정취가 생겨 비록 하나하나 모두 신기할 수야 없지만, 나라의 현인이나 성인에 비견하여 포장한다면 지나치다. 왕관(王觀)은 재량이 호방하여, 그 신선하고 아름다운 부분과 경망스런

가 되었다가 얼마 후에 순주창부(順州昌府)가 되었다. 그는 음악을 좋아하여 악부의 장단구(長短句)를 지었는데, 사운(詞韻)이 맑고 고와서 북송 시대 사가(詞家)들의 대종(大宗)이 되었다. 《宋史 卷444 周邦彥列傳》

부분이 모두 사람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심공술(沈公述)·이경원(李景元)·공방평(孔方平)·처도(處度)의 숙부와 조카·조차웅(晁次膺)·만사아언(万俟雅言)은 모두 아름다운 구절이 있다. 그 중에서도 만사아언이 더 걸출하다. 그러나 6명의 원류는 유씨(柳氏)로부터 나왔는데, 병폐는 운율이 없는 것에 있다. 만사아언은 초기에 자신의 사집을 두 가지 문체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아사(雅詞)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측염(側艷)이라고 하여 《승훤려조(勝萱麗藻)》라고 제목을 붙였다. 훗날 과거에 합격해 관리가 되었는데 측염체가 너무 심하게 무퇴하다고 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삭제하였다. 다시 시집을 편집하면서 다섯가지 문체로 분류하였는데, 응제(應製)·풍월지분(風月脂粉)·설월풍화(雪月風花)·지분재정(脂粉才情)·잡류(雜類)라고 하였다. 주방언이 《대성(大聲)》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조차웅 역시 간혹 측염체를 지었다. 전불벌(田不伐)의 재사(才思)는 만사아언과 함께 경쟁하는데 측염체의 사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전중행(田中行)은 사람 마음속의 일을 제대로 묘사할 줄 알았는데, 비속한 사어를 섞어 서서 오묘함을 곡진하게 표현했으니 마땅히 만사아언보다 나은 편에 속해야 한다. 그러나 장엄하게 말하지만 번번히 아름답지는 않다. 일찍이 부채 하나를 들고 그 부채 위에 사구를 쓰기를, “옥같은 나비가 꽃을 사모하여 마음이 움직였다.”라고 했다.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세 곡조를 연이은 이름이다. 이 시를 대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내려가 절하겠다.”라고 했다. 북리(北里)의 좁은 골목길 사이를 횡행하는 자이다. 종실에서는 조온지(趙溫之, 唐壯宗)가 버금간다. 장단구중에 우스갯소리로 근거 없는 말을 만들었는데 지화(至和)³⁴ 연간에 시작하였다. 가우연간 이전에는 아직 융성하는 못했다. 희풍(熙豐)·원우(元祐) 연간에 연주(衮州)의 장산인(張山人)이 우스갯소리로는 서울에서 독보적 존재였는데 때때로 한 두 해(解)를 지어냈었다. 택주(澤州)의 공삼전(孔三傳)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제궁조(諸宮調)의 고전(古傳)을 창시하였는데, 사대부 모두

34) 지화(至和) : 북송 인종(仁宗)의 연호로, 1054~1055년이다.

가 외울 수 있었다. 원우 년간엔 제수 왕제수(王齊叟)가, 정화(政和)³⁵⁾ 연간엔 조조(曹組)가 모두 글을 잘 지었는데, 매번 장단구를 지어낼 때마다 사람들 대화에 회자(膾炙)되었다. 왕언령은 우스갯소리로 하북(河北)지역을 떠들썩하게 하였다. 조조는 끝내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홍창형(紅窗迥)>과 잡곡(雜曲) 수백 해를 지었는데, 듣는 사람들이 포복절도할 정도라 골계를 하는 무뢰배 중에 으뜸이었다. 인연으로 행운을 만나 관직은 방어사(防禦使)에 이르렀다. 같은 시대에 장곤신(張袞臣)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조조의 부류로 궁중에 사를 바쳤는데 장곤신의 노래라고 했다. 그 뒤에 원조의 사업을 이어받은 사람이 더욱 많아졌다. 장난스럽고 비천하여 옛날에는 없던 것이었다. 조조의 아들 지함문사(知閤門事) 조훈(曹勳)은 자가 공현(公顯)인데 역시 문장을 잘 지었다. 일찍이 집안의 문집을 판각하여 부친의 추행을 덮어버리려고 하였다. 근래에 유지(有旨)가 양주(揚州)에 와서는 그 판본을 훼손하였다고 한다.

[2.17원문] 樂章集淺近卑俗

柳耆卿《樂章集》，世多愛賞，其實該洽，序事閑暇，有首有尾，亦間出佳語，又能擇聲律諧美者用之。惟是淺近卑俗，自成一體，不知書者尤好之。予嘗以比都下富兒，雖脫村野，而聲態可憎。前輩云：「《離騷》寂寞千年後，《戚氏》淒涼一曲終。」《戚氏》，柳所作也，柳所敢知世間有《離騷》？惟賀方回、周美成時時得之。賀《六州歌頭》、《望湘人》、《吳音子》諸曲，周《大酺》、《蘭陵王》諸曲最奇崛。或謂深勁乏韻，此遭柳氏野狐涎吐不出者也。歌曲自唐虞三代以前，秦漢以後皆有，造語險易，則無定法。今必以「斜陽芳草」、「淡煙細雨」繩墨後來作者，愚甚矣。故曰：不知書者，尤好耆卿。

35) 정화(政和) : 송徽宗(宋徽宗)의 연호로 1111년부터 1118년까지이다.

[2.17역] 《樂章集》은 알팍하면서 비속하다.

유영(柳永)³⁶⁾의 《악장집(樂章集)》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여 감상하였는데, 그 사실이 적절하고 서사한 부분이 한가로웠으며 처음과 끝이 있었다.³⁷⁾ 다만 사이에 간혹 아름다운 사어가 나오고 또 성률 중에 조화롭고 아름다운 것을 가려서 사용할 수 있었다. 다만 깊이가 알팍하고 비속해서 저절로 하나의 사체(詞體)를 이루어서 글을 모르는 사람이 특히 좋아했다. 내가 일찍이 이것을 도회지에 사는 부유층 자제에다 비유하곤 하였는데, 비록 존스러움을 벗어났다 하더라도 소리와 형태는 싫어할만 하였다. 선배들이 말하기를 “《이소경(離騷經)》은 천년이 지나자 적막해졌고, <척씨(戚氏)〉 한 곡조가 끝나자 처량해졌다.”라고 했다. <척씨〉는 유영이 지었는데, 유영이 어떻게 감히 세상에 <이소경〉이 있는지 알았겠는가? 하주(賀鑄)와 주방언(周邦彥)만이 때때로 시격에 합당했을 뿐이다. 하주의 <육주가두(六州歌頭)〉, <망상인(望湘人)〉, <오음자(吳音子)〉 등 여러 가곡과 주방언의 <대포(大酺)〉와 <난릉왕(蘭陵王)〉 등 여러 가곡이 가장 빼어나다. 어떤 사람은 아주 강경해서 운율이 모자란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유영(柳永)이 야호(野狐)의 독침을 맞고 뱉어내지 못한 것이다. 가곡은 요순(堯舜)과 하은주(夏殷周) 삼대 이전부터 진·한(秦漢) 이후에 모두 있었는데, 가사를 지어내는 복잡하고 평이함은 정해진 법칙은 없었다. 오늘날에는 반드시 ‘향긋한 풀숲에 석양이 내리네[斜陽芳草]’, ‘열은 안개와 가랑비[淡煙細

36) 유영(柳永) : 송나라 승안(崇安) 사람으로 자는 기경(耆卿)이다. 벼슬이 둔전원외랑(屯田員外郎)에 이르렀으므로 세상 사람들은 유둔전(柳屯田)으로 불렀다. 사 짓는 것에 뛰어나서 교방(教坊)의 악공(樂工)들이 매번 새로운 곡조를 얻게 되면 반드시 유영에게 노래가사를 요구하곤 하였다. 저서에 《악장집(樂章集)》이 있고 《후산시화(後山詩話)》에도 보인다. 《尚友錄 卷16》

37) 서두와 서미가 호응을 이루었다. 만약 문장에서 “其實” 두 글자가 없다면, 愛賞은 다음의 세 문장의 내용을 개괄할 수 없을 것이다. ‘愛’는 ‘該’를 목적으로 취해, 세인들이 유사(유사)의 융합성을 좋아했다는 뜻으로 세인이 주어(주어)가 된다. 다음 문장 ‘序事(序事) 有首有尾’의 주어는 마땅히 유사(유사)이지 세인이 아니므로 문장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혼란을 낳게 된다. 그러므로 ‘愛賞’ 뒤의 ‘其實’ 두 글자는 결코 있으나 없으나 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천일각본의 교정을 따랐다.

雨’라는 사구를 모범으로 삼은 후대의 작가들이 매우 어리석다. 그러므로 글을 모르는 사람이 특히 유명을 사를 좋아한다고 말한 것이다.

[2.18월문] 東坡指出向上一路

長短句雖至本朝盛，而前人自立與真情衰矣。東坡先生非心醉於音律者，偶爾作歌，指出向上一路，新天下耳目，弄筆者始知自振。今少年妄謂東坡移詩律作長短句，十有八九不學柳耆卿，則學曹元寵。雖可笑，亦毋用笑也。

[2.18문] 소식(蘇軾)이 위로 향하는 새로운 한 길을 지적해내었다.

장단구가 비록 송대에 성행했지만, 이전 사람들의 자립성과 진정성은 쇠퇴하였다. 소식(蘇東坡)은 음률에 심취해 있는 작가는 아니라 우연히 가사를 지어 위로 향하는 새로운 한 길을 지적해내었다. 작가들이 비로소 스스로 붓을 들어 분발해야 함을 알았다. 오늘날 젊은이들 중에 소식이 시의 음률을 바꾸어서 장단구를 지었다고 망령되게 말하는 사람은 열에 여덟 아홉은 유명을 사를 배우지 않았다면 원충(元寵) 조조(曹組)의 사를 배운 사람이다. 비록 가소롭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또한 웃어넘기지 말아야 한다.

[2.19월문] 歐詞集自作者三之一

歐陽永叔所集歌詞，自作者三之一耳。其間他人數章，羣小因指爲永叔，起曖昧之謗。

[2.19문] 구양수의 사집에서 스스로 지은 사가 삼분의 일이다.

구양수(歐陽脩)의 사집에 수록된 가사는 직접 창작한 것은 3분의 1뿐이었다. 그 사이 다른 사람들의 몇몇 사장은 소인배 무리가 그대로 인습(因襲)하여 구양수가 지었다고 지목하니 작품이 애매모호하다는 비방이 일어났다.

[2.20원문] 小山詞

晏叔原歌詞初號《樂府補亡》。自序曰：「往與二三忘名之士浮沉酒中，病世之歌詞不足以析醒解慍，試續南部諸賢作五七字語，期以自娛。不皆叙所懷，亦兼寫一時杯酒間聞見，及同游者意中事。嘗思感物之情，古今不異。竊謂篇中之意，昔人定已不遺，第今無傳耳，故今所製，通以《補亡》名之。始時沈十二廉叔、陳十君龍家有蓮、鴻、蘋、雲，工以清謳娛客，每得一解，即以草授諸兒，吾三人聽之，爲一笑樂。」其大指如此。叔原於悲歡合離，寫眾作之所不能，而嫌于夸。故云：「昔人定已不遺，第今無傳。」蓮、鴻、蘋、雲，皆篇中數見，而世多不知爲兩家歌兒也。其後目爲《小山集》，黃魯直序之云：「嬉弄於樂府之餘，寓以詩人句法，清壯頓挫，能動搖人心。」又云：「狹邪之大雅，豪士之鼓吹，其合者《高唐》、《洛神》之流，其下者不減《桃葉》、《團扇》。」「若乃妙年美士，近知酒色之娛；苦節懼儒，晚悟裙裾之樂。鼓之舞之，使宴安酖毒而不悔，則叔原之罪也哉！」叔原年未至乞身，退居京城賜第，不踐諸貴之門。蔡京重九冬至日遣客求長短句，欣然兩爲作《鷓鴣天》：「九日悲秋不到心，鳳城歌管有新音。風彫碧柳愁眉淡，露染黃花笑靨深。初過雁，已聞砧，綺羅叢裏勝登臨。須教月戶纖纖玉，細捧霞觴艷艷金。」曉日迎長歲歲同，太平簫鼓間歌鐘。雲高未有前村雪，梅小初開昨夜風。羅幕翠，綿筵紅，釵頭羅勝寫宜冬。從今屈指春期近，莫使金罍對月空。」竟無一語及蔡者。

[2.20역] 소산의 가사

안기도(晏幾道)³⁸⁾의 가사는 처음에 《악부보망(樂府補亡)》이라 이름 지었다. 자신의 서문에 말하기를, “예전에 이름을 잊어버린 두어 명의 사대부와 함께 술자리를 즐기면서 세상의 가사로는 숙취(宿醉)를 깨고 화를 풀기에 부족함을 병통(病痛)으로 여기고, 시험 삼아 남쪽 지역에 사는 현

38) 안기도(晏幾道) : (1031~1106). 중국 송(宋) 나라 인종(仁宗)~徽宗(徽宗) 때의 문인이다. 안수(晏殊)의 일곱째 아들로, 아버지와 함께 이안(二晏)이라 불림. 섬세하고 애상적인 시풍을 보인다.

자(賢者)들이 지었던 오언시와 칠언시의 시어를 이어 지었는데 스스로 즐기겠다고 다짐하였다. 모두 가슴 속에 품은 생각을 서술하지 않고, 당시 술자리에서 보고 들을 것과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일을 아울러 묘사하였다. 일찍이 사색하고 사물에서 느끼는 감정이 옛날과 오늘날이 다르지 않다. 삼가 시편 안에 담긴 의미를 말하자면, 옛 사람들은 진정 이미 남아있지 않고, 다만 오늘날에 전해지는 것은 없을 따름이므로 지금 지은 것을 통틀어 《보망(補亡)》이라고 이름 붙였다. 초창기에 십십이염숙(沈十二廉叔), 진십군용가(陳十君龍家)에 연(蓮)·홍(鴻)·빈(蘋)·운(雲)이 있는데, 맑은 시어를 정교하게 다듬어 시인을 즐겁게 하여 매번 한 해(解)를 얻으면 즉시 휘갈겨서 아이들에게 써주었는데 우리 세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한바탕 웃으며 즐거워하였다.”라고 하였는데, 그 대체적인 의미가 이와 같았다. 안기도는 기쁨과 슬픔, 만남과 헤어짐에 있어서 많은 작가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묘사하였는데 과장된 표현을 싫어했기 때문에 말하기를, “옛 사람들은 진정 이미 남아있지 않고, 다만 오늘날에 전해지는 것이 없다네. 연밥(蓮)·기러기(鴻)·개구리밥(蘋)·구름(雲)은 모두 시편 속에 자주 나오기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두 부자(父子)의 가사인지는 알지 못한다. 그 뒤에 《소산집(小山集)》이라고 제목을 달고 황정견(黃庭堅)이 서문에서 말하기를, ‘악부의 막바지에 장난스레 짓다가 사인이 시귀(詩句) 짓는 방법에 접목하여 맑고 씩씩하던 분위기가 갑자기 꺾어서³⁹⁾ 사람의 마음을 동요시킬 수 있었다.’ 또한 말하길 ‘협사의 대아와 호협한 선비의 고취(鼓吹)에 합치되는 것은 《고당부(高唐賦)》와 《낙신부(洛神賦)》의 부류이고, 그 보다 못한 것이라도 《도엽(桃葉)》과 《단선(團扇)》에도 뒤지지 않는다.’ 또 말하기를, ‘자네는 바로 묘령의 미남자인데, 최근에 주색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고된 시절에서도 굳건한 선비인데, 만년에 여색의 즐거움을 깨달았다. 연주하고 춤추며 연회를 즐기면서 술에 취해도 후회하지 않게 한다면 안기도의 죄이다.’라고 했다. 안기

39) 돈좌(頓坐) : 한껏 고조되던 긍정적이고 밝은 분위기가 냉혹한 현실 앞에 갑자기 꺾이는 구조로 서사의 묘사법으로 사용되는 돈좌법을 말한다.

도는 나이가 관직에서 은퇴할 나이가 되지 않았는데, 서울에 물러나 살면서 사저(私邸)를 하사받았지만, 여러 귀족의 문에는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채경(蔡京)이 중앙절과 동지에 날마다 문객을 보내 장단구를 요구하였는데 흔쾌하게 <자고천(鷓鴣天)> 두 편을 지었다. “중앙절 9일은 가을이 마음에 이르지 않아 슬픈데, 봉성(鳳城)의 노래와 음악에 새로운 소리가 있구나. 바람에 푸른 버들 시들어 근심어린 눈썹 얹어지는데, 이슬 물든 국화꽃에 미소 짓자 보조개 깊게 패이네.”, “처음 기러기 지나가고, 다듬이 소리 들렸고, 비단결 꽃떨기 속에 올라가 내려다보니 절경이라네. 모름지기 달에 사는 섬섬옥수 향아에게, 노을 술 담은 곱디 고운 금빛 술잔 살포시 받들게 하리라.”, “새벽 해를 맞이해도 해마다 같은데, 태평소(太平簫)와 북 사이의 노래와 종소리 울리네. 구름 높아도 앞마을에 아직 눈 내리지 않았는데, 매화는 어려도 어젯밤 바람에 처음으로 꽃 피웠구나. 비단 장막은 푸르고, 비단 대자리는 붉나니, 머리에 비녀 꽂은 미녀는 겨울에 어울리네. 지금부터 손가락 꼬으며 봄에 만날 기약 가까우니, 금술동이로 헛되이 달을 마주하게 하지 마오”라고 했는데, 결국 한 글자도 채경에게 이르지 않았다.

[2.21 원문] 周·賀詞語意精新

江南某氏者解音律，時時度曲。周美成與有瓜葛，每得一解，即爲製詞，故周集中多新聲。賀方回初在錢塘作《青玉案》，魯直喜之，賦絕句云：「解道江南斷腸句，只今惟有賀方回。」賀集中如《青玉案》者甚眾。大抵二公卓然自立，不肯浪下筆，予故謂語意精新，用心甚苦。

[2.21 釋] 주방언과 하주의 사어(詞語)에 담긴 의미가 정교하면서 새롭다.

강남에 사는 아무개가 음률을 이해하여 때때로 곡조를 지었다. 주방언과 인척 관계⁴⁰⁾가 있어 매 번 한 해를 지을 때마다 즉시 가사를 지었기

40) 인척 관계 : 과갈(瓜葛)은 오이와 씹은 덩굴이 받고 그 가지와 잎이 서로 엉켜 어지는 점이 인척 사이의 관계와 같다는 뜻에서 온 말이다.

때문에 주방언(周邦彥)의 사집(詞集) 중에는 새로운 곡조가 많았다. 하주(賀鑄)가 처음에 전당(錢塘)에 살면서 〈청옥안(靑玉案)〉을 지었는데, 황정견(黃庭堅)⁴¹⁾이 기뻐하며 절구를 지어서 말하기를, “강남의 애간장 끊어지는 사구를 이해하는 이는, 작곡에 오직 하주만 있구나!”라고 했다. 하주의 사집중에 〈청옥안〉 같은 작품이 매우 많다. 대저 주방언, 하주 두 사람은 탁월하게 뛰어나 스스로 품격을 세워서 제멋대로 사를 지으려 하지 않아서 내가 일부러 시어의 의미가 정교하면서 새로우니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말하는 것이다.

<References>

1. Lee, Tae-hyoung. “A Study on 《Bi Ji Man Zhi Notes》 Note and Comments Ci”. *Junguk Eomun Nonyeok Chonggan* Vol.24, (2009.1).
2. Lee, Tae-hyoung. “A Study on the Wang Zhuo’s poet, poetry and music relations”.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Vol.4 No.1, (2011.6).
3. Shin, Hyun-seok. “A Study on the Ci literature of Wang Zhuo”. *Journal of Chinese Humanities* Vol.15, (1996).
4. Xu Xinyi. *Bijimanzhi xiaojian*. National Taiwan Normal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1981.
5. Wang Zhuo. *Bijimanzhi*. Beijing: Zhonghua Book Company, 1991.
6. Yue Zhen. *Bijimanzhi xiaozheng*. Chengdu: Bashu Book, 2000.

41) 노직(魯直) : 송나라 시인 황정견(黃庭堅, 1045~1105)의 자이다. 호는 산곡(山谷)이다. 또 다른 호는 부옹(涪翁)이다. 진관(陳觀)·장퇴(張耒)·조보지(晁補之)와 함께 소식(蘇東坡)의 문하에 노닐어 ‘소문 사학사(蘇門四學士)’라고 일컬어졌다.

7. Yue Zhen, "Bijimanzhi de xiaogai ji qijiazhi". *New Horizons from Tian Fu* No.6, (2001).

<참고문헌>

1. 이태형, <시대현실을 반영한 사론서 《碧鷄漫志》初探>, 《中國語文論譯叢刊》 제24집, 2009.1.
2. 이태형, <王灼의 詩·詞·樂關係考察>, 《국제지역학논총》, 2011.6.
3. 신현석, <王灼의 詞學論考>, 《중국인문과학》 제15집, 1996.
4. 徐信義 撰, 《碧鷄漫志校箋》, 國立臺灣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1981.
5. 王灼 撰, 《碧鷄漫志》, 北京, 中華書局, 1991.
6. 岳珍 著, 《碧鷄漫志校正》, 成都, 巴蜀書社, 2000.
7. 岳珍, <碧鷄漫志의 校改及其價值>, 《天府新論》 第6期, 2001.

<Abstract>

《BiJiManZhi》 established a comparatively complete theoretics system concerning The origin and ontology of Ci poetry in view of philosophical cosmologist genesis and dualism. Wang Zhuo(王灼) put forward the following Ci Poetry of the Central Ideas. Wang Zhuo is literature, theorists during the southern song dynasty. He achieved some success In the fields.

His 《BiJiManZhi》 is the highest achievement. That is the earliest extant a ci theory monographs. This monograph related to Music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i, the Ci origin, Ci criticism and so on. That is a high works of data value and academic value. This article uses the

literature review method, mathematical statistics, and logic analysis method. Study ci poetry criticism theory and analysis aesthetic standards. The first part with a longitudinal perspective Wang Zhuo for CI, CI origin theology and part of speech features are discussed. The social background and scale master piece of Ci that had mainly probed the sources and evolution of poetry, ci and the southern song dynasty, made the question of their clear to break through then stereotypes of ci the southern song dynasty to live up to Ci for Poetry and offered the theoretical proofs for remaining the song like literary traits of ci.

Key Words : 왕작(WangZhuo), 남송(Southern Song Dynasty), 벽계만지(《BiJiManZhi》), 사학비평(Criticism of Ci Literature), 사학유파(Schools of Ci Literature)

